

## 세계 수준의 학술지 등장을 고대하며



글 박상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 서울대 분자생물학  
 명예교수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회(과편협) 회보 『과학편집(Science Editing)』의 창간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1년 9월 출범 이후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과편협은 적지 않은 일을 해왔습니다. 각종 워크숍과 포럼 형식으로 과학 학술지 편집인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출판윤리 등의 문제에 대한 자문, 국제 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최신 동향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우리나라의 학술지 발행 역량을 끌어올리는데 일조하였습니다.

과편협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최근 들어 국제 수준의 형식을 갖춘 영문 학술지의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술지의 영향력 지표가 상승하고 외국인 저자의 투고도 늘어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 학술지가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학술지로 발돋움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진정한 회장님을 비롯한 학술지 편집인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과편협의 활동상과 결실은 학회의 학술활동지원사업을 지원해온 과총에게도 귀감이 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과학 학술지가 나가야 할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여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각 기관에서 임용, 승진, 수상 등의 지표로 삼는 논문을 국제 색인

데이터베이스 등재 여부나 학술지 명성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서 많은 과학기술자가 과학 학술지의 편집인과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며 우리나라 과학 학술지를 서유럽이나 북아메리카의 학술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제 학술지로 성장시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수준의 학술지가 등장하는 날이 곧 다가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창간하는 『과학편집』에 각종 최신 정보가 제공되므로 학술지 편집인과 편집위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발간되어 편집인 여러분이 애독하는 회보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창간호가 나오기까지 애쓰신 과편협 임원과 위원 여러분의 노력에 더욱 감사드리며, 과총도 이러한 간행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회보 창간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박 상 대